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2년 가을 제68권 3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믿음의 씨앗, 성경

권서 백흥준이 지게 끈으로 꼬아
몰래 들어온 쪽복음을 읽으며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성서한국

2022 가을 제68권 3호

02 포토에세이

어둠 속에 비친 빛

04 커버스토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08 2022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8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성경을 받은 사람들

양골라 지역 교회 공동체에 성경을 보급하다

13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4 성경을 보내기까지

동전을 모아 보내는 성경
-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목사 인터뷰

16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부 수업,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간담회 개최

19 후원 이야기

22 대한성서공회 소식

24 우크라이나 성서 후원 보고

우크라이나에 총 381,600부의
성서를 보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법체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성서사업센터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재단사무국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2년 9월 30일
· 인쇄인 인쇄처·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집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한국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 문자교실에 참여한 파키스탄 비나(Beena) 할머니

어둠 속에 비친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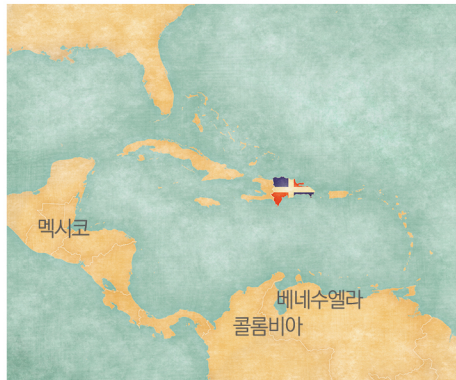
파키스탄 잠루드(Jamrud)지역은 아프가니스탄과
28km정도 떨어진 국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몇 년 전까지도 파키스탄 정부의 법과 명령에서 벗어나
탄약의 휴대와 사용도 가능했을 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또 지르가(Jirga)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통 원로 그룹의 통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부르카를 쓰고 남성과 동행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비나 할머니는 자녀, 손자들과 이곳 잠루드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은 매우 적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읽기와 쓰기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저희 가정에 방문하신 목사님께서
파키스탄성서공회의 문자교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저와 며느리들, 손녀들의 수업을 허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르가(Jirga)의 허락까지 받은 후에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 중 11명의 여성이 글을 배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매일 2~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의 시작은 히스파니올라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섬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맞은편 섬 서쪽에는 아이티가 위치해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1/2 크기로 작고 인구도 1천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 도미니카공화국 위치

도미니카공화국은 1970년대 초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치적 부패와 국가 경영의 실패로 다시 쇠퇴하며 국민들의 빈부격차가 극심해졌

습니다. 잘 지어진 단독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슬럼가들이 즐비합니다.



▲ 푸에르토 플라타(Puerto Plata)지역 슬럼가

인구의 44%가 가톨릭이며 개신교는 22%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과거 노예 제도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토속종교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더욱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 위기 속의 신앙

도미니카공화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전체 인구의 절반은 평균 임금의 20%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생활하며 쓰레기를 실은 차가 오면 쓸만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달려옵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경 한 권을 구하기 어려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소년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기

또 다른 문제는 폭력과 청소년 범죄입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학대를 경험하기도 하며, 가정 폭력의 고통을 온 몸으로 겪으며 성장합니다. 보호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거리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몰리다시피 거리로 나온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안타까운 폭력의 피해자였지만, 거리에서 살아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로 변해갑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도미니카공화국성서공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 전체에 만연해 있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를 성경으로 바꾸어 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폭력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주일학교에서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성경을 읽고 공부하도록 돕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주일학교는 참여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갯단에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 무기를 가져와 성경과 바꿔가는 사람들

“교실에서 처음 성서공회 직원을 만났던 날이 기억나요!

그 때 저는 성경에 대해 들어보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 몰랐어요.
주일학교에 출석해 성경공부를 함께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모라(Mora/주일학교 참여 어린이)

무기를 내려놓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폭력과 그로 인한 범죄들 가운데 도미니카공화국의 많은 사람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사람들이 가진 '무기를 성경으로 바꾸어 주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고 녹슨 칼을 가져왔고, 다른 사람은 긴 장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받아 갔습니다.

성경을 받아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남성은 럼주 한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년간 자신을 망가뜨린 무기가 술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술병을 건네며 남성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술을 끊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웃 집의 아버지와 아들은 매일같이 칼부림을 하며 싸웠습니다. 둘 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걸 보게 된 저는 용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캠페인에 대해 알려주었고, 무기 대신에 성경을 붙들라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성경을 가지게 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배웠고 믿음 안에서 변화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잔나(Rosanna)

폭력과 범죄가 자연스러운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배우고,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며 악순환의 굴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에서조차 사랑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줍니다. 성경은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폭력이 가득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소망하게 합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폭력과 범죄가 만연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8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붉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2.8.25 기준)

아메리카 1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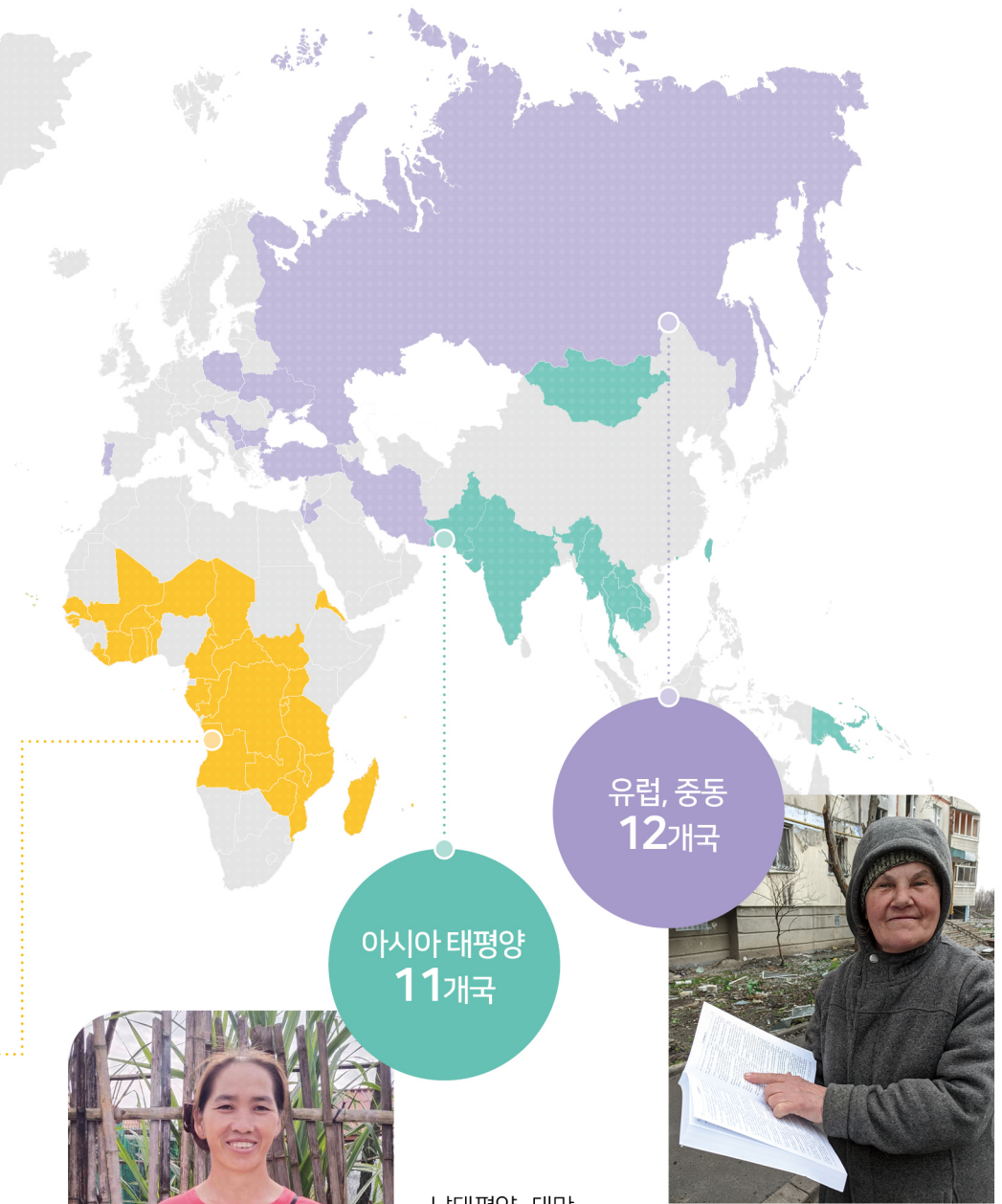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아이티,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30개국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이셸,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 태평양 11개국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홍콩

유럽, 중동 12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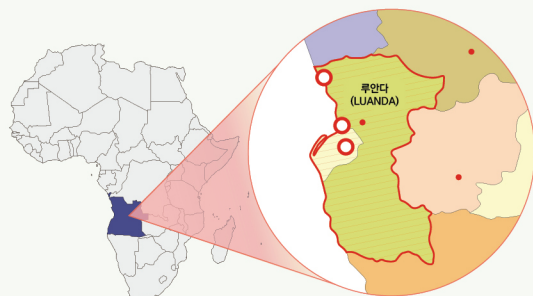
러시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튀르키예(터키),
포르투갈, 폴란드(우크라이나)

앙골라 지역 교회 공동체에 성경을 보급하다

앙골라성서교회 베아트리스 우파 총무는 한국교회에서 후원한 성경으로 지역 교회 공동체들에게 성경을 보급하였다는 감사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더불어 성경을 받은 앙골라 사람들의 생생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자 여러 사진과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방문한 교회들은 수도 루안다를 기준으로 짧게는 차로 1-2시간 길게는 3시간 거리에 위치한 교회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Luanda) 근처에 위치한 교회 공동체들에 방문해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베아트리스 우파 총무



앙골라성서교회가 방문한 세 지역 교회 ▲

1. ICA 그리스도 교회

(Church of Christ) 공동체 방문



▲ 성경을 받은 ICA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

2022년 2월 6일, 앙골라성서교회는 수도 루안다(Luanda)에서 30km 떨어진 ICA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과 노점상을 하며 생활합니다. 마을에 전기는 공급되지만 음용수가 부족해 많은 주민들은 식수를 물 저장소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돈이 없

는 사람들은 물을 찾기 위해 긴 거리를 걷곤 합니다. 이런 경제적 빈곤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성경 보급 행사에는 25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였고 교단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어린이들도 참석하였습니다.



▲ 마리아 아폰소(Maria Afonso)

“생애 처음으로 성경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5년이나 이 교회에 출석했지만, 성경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성경 활자가 선명하고 커서, 글씨가 작으면 성경 읽기가 어려웠던 저희들이 읽기에 편합니다. 이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국교회 후원자들에게 많은 감사를 전합니다.”

-마리아 아폰소(ICA 그리스도 교회 성도)

2. IERA 복음주의 개혁신교회

(Evangelical Reformed Church) 공동체 방문

2월 22일 앙골라성서교회는 팔란카(Palanca)에 위치한 IERA 복음주의 개혁신교회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마르코 마강가(Marco Makanga) 목사님은 시편 119:11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며,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은기나마우 아폰소(Nguinamau Afonso)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키콩고어 성경 갖기를 바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값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가격이 많이 비싸서 성경을 구입하려고 서점에 세 번이나 갔지만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한국교회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은기나마우 아폰소(복음주의 개혁신교회 찬양대장)



▲ 테라 노바 마을 어린이들

3. 연합 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공동체

같은 달 24일, 앙골라성서공회는 수도 루안다에서 186km 떨어진 벵고(Bengo) 주 암브리즈(Ambriz)시에 방문했습니다. 테라 노바(Terra Nova) 공동체는 농업과 영세 어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갑니다. 마을 근처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 음용수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은 대단히 더웠고,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열기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찬양을 부르자 행사장 분위기는 금세 밝아졌습니다.

테라 노바 교회의 아델레이드 은골라(Adelaide Ngola) 목사님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 눈으로 제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을 보니 행복합니다. 성서공회와 한국교회 후원자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기도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교회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못했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에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손에 성경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은 복음 전도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델레이드 은골라(테라 노바 감리교회 목사)

“제가 이 교회에 다닌 이래로 처음 갖게 된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선물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는 앙골라성서공회에 복주시길 기원합니다. 저에게 성경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테레사(테라 노바 감리교회 성도)



▲ 마리아 테레사(Maria Teresa)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상 기후로 파키스탄에서는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가축, 농작물을 잃었고 도로와 공장, 집 등 주요 시설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1,800~2,200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망가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NGO단체들이 구호품을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파키스탄성서공회는 말씀을 전파하며, 피해



▲ 홍수 피해를 입은 가축과 사람들

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 가정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성서공회는 재해로 고통받는 파키스탄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하나님께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 많은 피해 가운데 필요에 따라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동전을 모아 보내는 성경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목사 인터뷰

금년 6월 첫째 주일, 진천중앙교회에서는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지키면서 200여 가정이 참여해 1년 동안 준비해온 '동전 모으기'로 총 500여만 원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우크라이나 성경 후원에 써달라고 본 공회에 보내오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기억하고자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목사님과의 대담을 후원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 김동환 목사

질문 | 우크라이나를 위한 성경후원을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답변 | 진천중앙교회는 매년 한번 전 교인 동전 모으기를 통해 여러 곳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들을 성경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마침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곳에 성경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동전을 모아서 성서공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성경을 제작·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더욱 기쁨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질문 | 교회 안에서 우크라이나 성경 후원을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답변 | 전 교인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6.25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국가가 위태롭게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귀중함을 상실하는 것이 전쟁이기도 합니다.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향을 잃고 피난민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 진천중앙교회에서 전달해 온 동전들

질문 | 우크라이나 성경 모금을 진행하며 기억나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답변 | 매년 한 번씩 동전 모으기를 하다 보니 성도들 가정에 동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집안에 숨은 동전을 살살이 찾아서 함께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취지는 동전을 모으자는 것이지만, 동전이 없는 가정에서는 지폐를 저금통에 넣어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가정은 식구들 숫자대로 동전 저금통을 만들어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의 사업이 무척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기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천중앙교회의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십사일반의 마음으로 전 교인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질문 | 모여진 귀한 헌금이 성경이 되어 전달될 텐데 교회의 바람과 소망을 전해주세요

답변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동전 모으기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열 명, 백 명, 천 명이 함께 동참을 하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성경 몇 권을 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아주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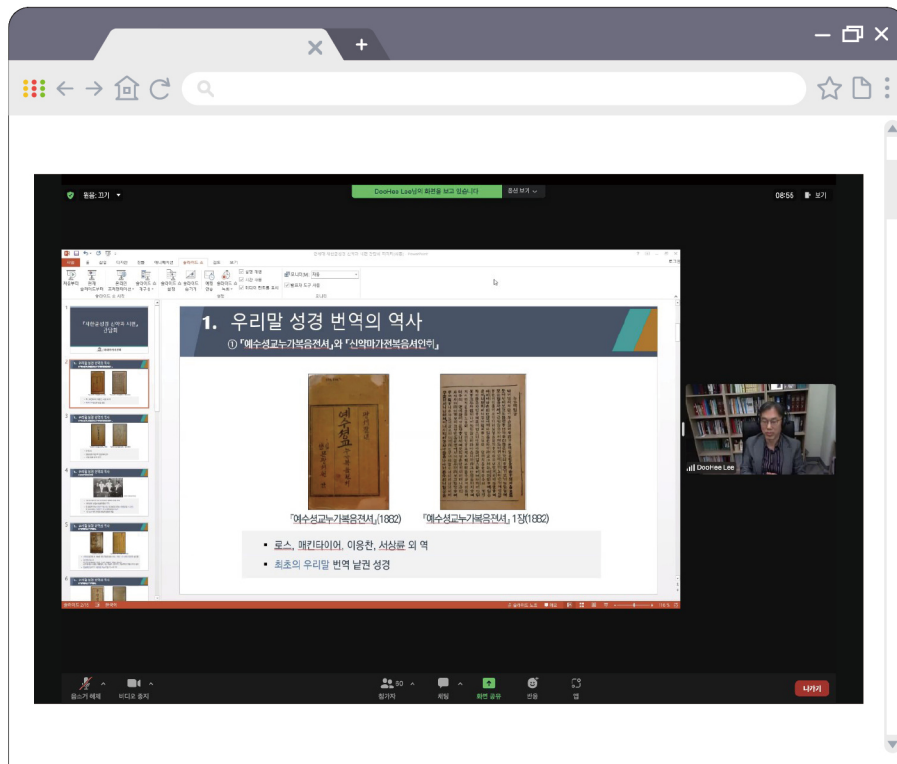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한 일은 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성경 보내기에 동참한다면 더욱 많은 성경들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성경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들을 위한 성경도 후원할 수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와 같은 가난한 나라 국민들을 위한 성경도 더욱 많이 제작하여 후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진행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처럼, 매년 한국교회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귀한 사역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부 수업,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간담회 개최

임성욱(연세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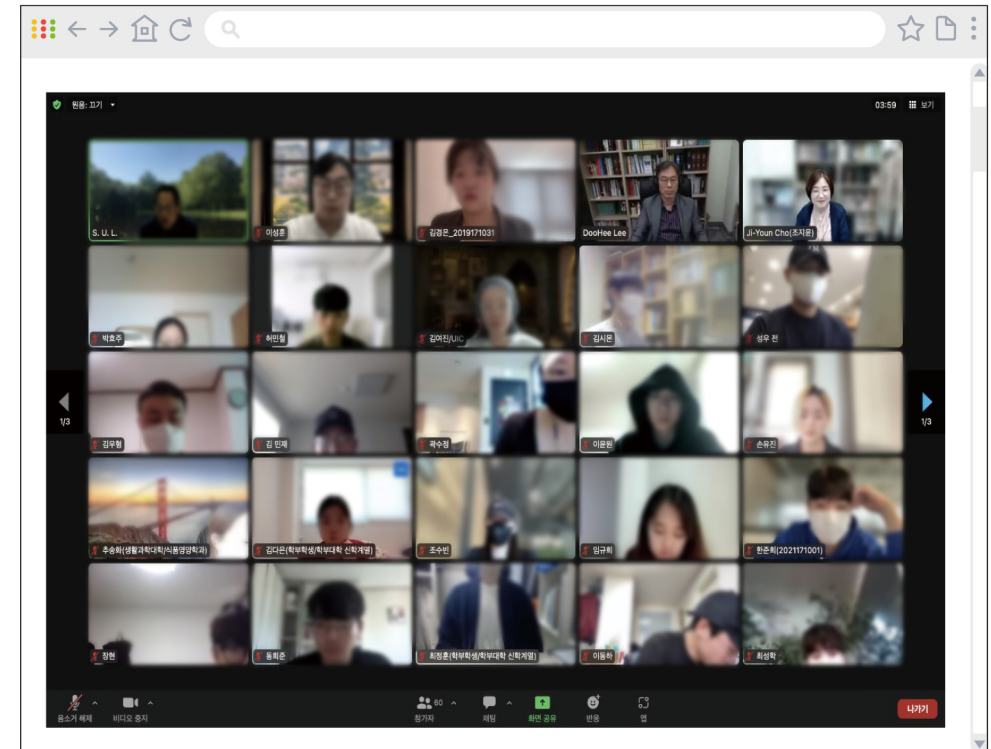
2022년 5월 10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필자는 필자의 학부 수업인 ‘텍스트와 해석’ 시간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성경번역연구소 이두희 소장의 발표

먼저 수업 전반부에 이두희 소장(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의 의미를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이두희 소장은 우리말 성경 번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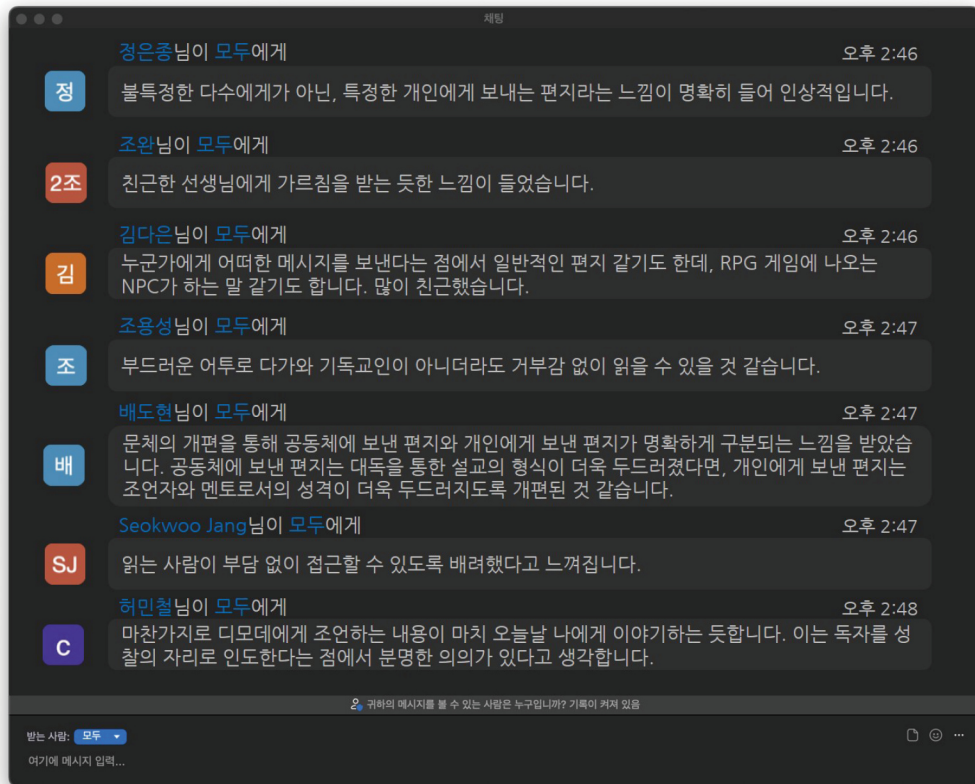


▲ 간담회 참석자들의 모습

역사와 성경 개정의 필요를 중심으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출판의 역사적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각각의 성경 번역서마다 주안점이 다른데, 특히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수업 후반부에 필자는 조지윤 국장(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의 협조 아래 연

세대학교 학부 학생들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읽고 그 번역에 대해 평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60여 명의 수강생들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마가복음 1장, 로마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을 차례대로 소리 내어 읽어 보고 자신들이 느낀 점을 솔직하게 발표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탈권위적인 번역이 예수님의 실제 사역에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 다른 일부 학생들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젊은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

세대에게 친근한 좋은 번역이라는 의견을 나누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이두희소장이 강조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 수업을 통하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의 주요 독자층인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젊은 세대가 직접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기존의 성경 번역과 비교하며 읽으면서 새로운 성경 번역의 의미를 느끼고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대한 성서공회와 현장 사이의 생생한 대화가 기대되는 바이다. 🌐



▲ 3차로 발송된 우크라이나어 성경 제작 모습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내다!

한국 교회, 후원회원 - <우크라이나어 성경> 28,000부 기증

2022년 6월 24일과 28일 그리고 7월 13일,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본 공회 이사장 양병희 목사(영안교회)는 “전쟁으로 시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백석총회(장종현 총회장)와 영안교회가 함께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안희성 목사(평안교회)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성경을 출판하고 인쇄해서 보내는 이 일에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동인지 모릅니다.”라고 하며 기쁨과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길교회 ‘카페길’ 관리 담당 박지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대, 상식 이상인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성경이 전달되어서 전쟁의 아픔이 아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에 3차로 성경이 발송되었습니다. 4월과 5월에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35만 3천 6백 부가 보내졌고, 7월에 <우크라이나어 성경> 2만 8천 부가 발송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에 추가 성경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 기증하는 <트위 아잔테어 및 현지어 성경> 앞 기증 예식 참석자들

아프리카에 보내는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서울광업교회 - <딩카 파당어 성경> 외 11,687부 | <킨야르완다어 성경> 14,365부 | <불어 성경> 11,640부
<영어 성경> 외 9,441부 | <츠와어 성경> 3,466부 | <트위 아잔테어 성경> 14,246부 기증

2022년 7월 27일, 서울광업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아프리카 6개국에 성경 64,845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광업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가 제작하여 반포하는 이 성경이 닿는 세계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살아나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우간다성서공회 사이먼 피터 총무를 비롯하여 후원받는 성서공회들은 영상 인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내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서울광업교회에 감사와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아프리카 6개국들은 대부분 빈곤과 내전의 문제, 이슬람교의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수단과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모두 내전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는 확장되는 이슬람교의 위협과 빈곤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며, 모잠비크는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재건에 대한 희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6개 나라에 전달되는 성경은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제작되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서울광업교회의 후원으로 전달된 성경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 기증하는 <태국어 성경> 앞 기증 예식 참석자들

복음을 전하는 창조적 소수

의림교회(김선희 장로, 이신자 권사) - <츠와어 성경> 3,764부 <태국어 성경> 3,070부

2022년 8월 23일, 의림교회(김명현 목사) 김선희 장로, 이신자 권사 가정의 후원으로 모잠비크와 태국에 성경 6,834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김명현 목사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림교회와 김선희 장로님의 가정을 사용하시어, 모잠비크와 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모잠비크성서공회 발렌티 세코 총무와 태국성서공회 프라킵 트리타사윳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 후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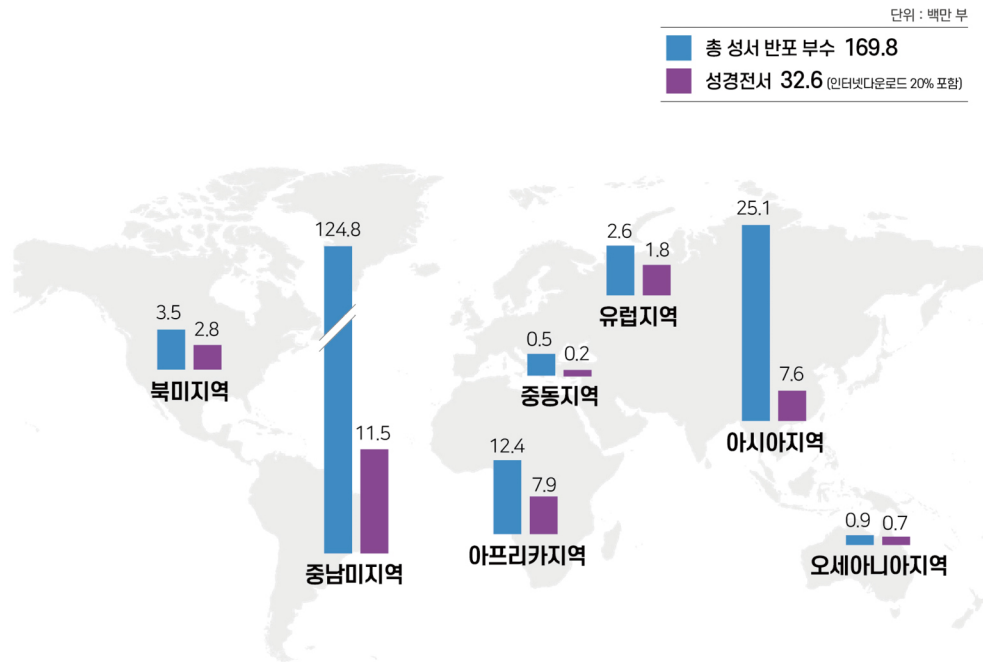
본 공회 호재민 총무는 “김선희 장로님과 이신자 권사님의 후원으로 보내는 이 성경이 태국과 모잠비크 땅을 고치며, 그 땅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모잠비크는 빈곤과 뿌리 깊은 토속종교, 이슬람교의 공격적 포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국은 인구 7,007만 명 중 90% 이상이 불교 신자로 기독교인은 1% 정도입니다. 대다수의 태국인들은 기독교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성경을 소유한 사람도 매우 적습니다.

모잠비크에 전달되는 <츠와어 성경> 3,764부는 성경을 가르치고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난으로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어 모잠비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태국어 성경> 3,070부는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며, 특별히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전해지는 성경이 모잠비크와 태국 복음화의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2021 세계 성서 반포 현황

팬데믹의 폭풍우가 이어진 중에도 3,200만 부 이상의 성경이 반포되다



2021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Scripture Distribution Report 2021), 세계성서공회연합회

▲ 2021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 총 169,800,000부의 성서가 보급되었고, 32,600,000부가 넘는 성경이 반포되었다.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서도 전 세계 후원자들은 나눔의 정신으로 위기에 반응하여 성서공회들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서를 계속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대의 힘

2020년 초,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성서사업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약 90개 나라 성서공회들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큰 타격을 입었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을 필요로 하는 때에 성경 반포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에 전 세계 성서공회 가족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이 발을 벗고 나섰다. 가장 큰 위기에 놓인 성서공회들을 돕기 위한 연대기금이 출범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성서공회들은 재정적 지원과 자국에서 반포할 성경을 받았다.

파나마의 성경 반포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거의 4배로 성장하였다. 마르코 고메즈 총무는 “도움의 소식은 우리에게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성서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움을 잘 활용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베냉에서의 성경반포는 팬데믹 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68% 증가하였다. 임마누엘 칸코우 총무는 “도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라고 말했다.



▲ 베냉의 기숙학교에 다니는 이지기엘(Ezekiel)

이지기엘은 2021년 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받게 되어 너무 기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모님과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제겐 성경이 없었어요. 제가 제 소유의 성경을 갖게 된 후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지기엘

2021년 태풍과 테러 공격을 받은 모잠비크에서는 성경 반포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5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전서를 받거나 다운로드하였다. 발렌티 세코 총무는 “하나님께서 연대기금을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성경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

우크라이나에 총 381,600부의 성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 된 우크라이나 성경 후원
에 많은 한국교회와 후원자들께서 힘을 보태 주
셨습니다. 이 후원을 통해 약 38만부 이상의 우
크라이나어 요한복음과 성경전서를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웃나라인 폴란드
로 피신하였습니다. 폴란드 전역의 교회들은 난
민들을 위한 음식, 옷, 약, 그리고 피난처를 포
함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
러운 상황에서 난민들을 돕는 교회들은 공통적
으로 실항민이 된 난민 가정의 모국어인 우크라
이나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폴란드성서공
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희망과 치유를 제공
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본 공회에서 1차로 발송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이 폴란드에 도착하여 우크라이나 난
민들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후 발송된 성경이 도착하는 대로 추가적인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에게 요한복음을 나눠주는 본
교회 호재민 총무



▲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을 들고 기뻐하는 레세크(Leszek)

레세크(Leszek)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 노
숙자, 장애인들을 도왔던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터지자 난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난
민들에게 나눠줄 우크라이나 요한복음을 받아
그는 함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해진 요한복음
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새
로운 힘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교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교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하나님은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유엔 인간개발지수 최하위권 국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은 불안한 치안와 가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거나 성경을 보급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기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고난 속에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전해주세요!

